

제29기
한국여성신학회
출판기념학술회 및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2024년 5월 25일 (토) 10시~13시

장소: 새길교회

< 제29기 한국여성신학회 >
회장: 백소영, 부회장: 강희수, 총무: 진미리,
편집위원장: 강호숙, 교육위원장: 이주아, 서기: 한경미, 회계: 장양미

순 서

인 사 말 ----- 백소영 회장

『연대와 여성신학』 출판기념 학술회

『연대와 여성신학』 소개 및 사회 ----- 강호숙 편집위원장
학술발표 ----- 박유미 박사
“딸을 위한 어머니는 없었다”

총회 본회

회원점명 ----- 한경미 서기

개회선언 및 회순채택 ----- 백소영 회장

사업보고(17쪽) ----- 진미리 총무

서기보고(20쪽) ----- 한경미 서기

편집위원회 보고(43쪽) ----- 강호숙 편집위원장

회계보고(45쪽) ----- 장양미 회계

감사보고(47쪽) ----- 진미리 총무

제30기 차기회장 인준 ----- 백소영 회장

제30기 부회장 선거 ----- 신임회장

감사 꽃다발 증정 ----- 신임임원

인사 및 폐회선언 ----- 신임회장

(부록) 한국여성신학회 회칙(49쪽) ----- (2020년 7월11일 개정본)

딸을 위한 어머니는 없었다

박 유 미(안양대학교 겸임교수)

1. 들어가는 말

2020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로 온 나라가 분노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런 성착취 동영상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남성 연대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¹⁾ 그동안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해 피해 여성의 관점과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판결하기보다는 남성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해석하고 판결하면서 성범죄를 가벼운 범죄로 보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남성 연대가 강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남성의 이익을 강화해 왔다. 반면 여성들은 범죄의 피해자이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도 못했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과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한 남성의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하였다.²⁾ 하지만 여성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대하고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³⁾ 규정하며 남성들의 관점을 거부하였다.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사건을 해석하고 규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여성의 사건에 여성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것은 사건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해결 방향을 바꾸게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는 남성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남성 연대가 매우 강하기에 남성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⁴⁾ 이런 현상은 교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함께 성경에 여성 연대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석자들도 이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구약을 보면 어머니가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어머니들은 모두 아들과 연결된 어머니이며 딸과 연결된 어머니는 없다. 특히 딸들이 피해를 입고 죽임을 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어머니가 부재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그것도 한 이야기에서만 어머니가 부재한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 문제가 생긴 모든 이야기에서 어머니가 부재하다는 것은 신학적 의도가 있거나 문화적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약에서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 혹은 아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

* 본 글은 「구약논단」 29권 2호(2023. 6)에 수록된 “어머니 부재가 딸에게 끼치는 영향-구약의 딸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 연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 1) 남성 연대에 대해서 최란은 남성 집단의 일원으로 승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남성성을 증명하고 그 방법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하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 일어난 ‘정준영 카톡방 사건’은 남성 연대의 전형적인 예이다. 최란, “온/오프를 넘나드는 남성연대와 성폭력”, 「여성이론」 제 40호 (2019), 216-217.
- 2) “강남역 살인범”에 징역 30년 … “조현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법률신문(2016. 10. 14)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03824>, 2020년 4월 28일 접속
- 3) “묻지마 살해” 아닌 ‘여성혐오’…‘강남역 살인사건’ 3주기 추모제” 조선일보(2019. 5. 17)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7/2019051702835.html 2020년 4월 28일 접속.
- 4) 대표적인 예로 심각한 성적 물의를 일으킨 전병욱씨의 경우 아직도 교단과 노회와 교회의 비호 속에 합동 교단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 위해 어머니가 등장하는 경우는 많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녀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문화적 관습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에 빠진 딸 문제에 어머니가 부재한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아들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딸들의 사건에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지했다면 딸들의 상황이 현재 본문에 기록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므로 곤란에 처한 아들을 돋는 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보며 어머니가 아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밝히고 곤란에 처한 딸에게도 그녀들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도와줄 보호자가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생각해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딸들이 곤란에 빠진 내러티브와 아들과 어머니가 나오는 내러티브에 대한 자세한 읽기를 통해 어머니의 부재와 존재가 딸과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딸이 곤란에 빠진 본문은 성폭행 본문을 선택하였고 아들과 어머니의 본문은 디나 사건이 일어난 족장 시대인 창세기에서 두 본문(창 21장, 27장)을 선택하였고 다말의 사건과 비교하기 위해 왕정시대의 어머니와 아들이 나타나는 두 본문(왕상 1장, 왕하 4장)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왜 구약에서 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등장했는지 성의 정치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 신약의 예를 통해 여성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려고 한다.

2. 곤란에 빠진 딸과 어머니의 부재 현상

구약에서 여성의 성폭행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여성 보호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관찰된다. 이 장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나오는 세 본문(창 34장, 삿 19장, 삼하 13장)을 살펴보면서 어머니로 상징되는 여성을 위한 보호자 부재 현상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부재가 성폭행당한 딸과 사건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세겜의 성폭행 사건(창 34장)

창세기 34장의 세겜 성폭행 사건은 야곱과 레아의 딸인 디나가 세겜으로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에게 잡혀 성폭행당한 것이다. 성폭행 이후 세겜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디나를 잡아두고 아버지 하몰을 시켜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요청한다(8절). 하지만 디나의 아버지 야곱은 이 일에 침묵하였고 디나의 남자 형제들은 이 일을 빌미로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25절)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여자들을 노예로 삼는다(29절).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의 행동에 화를 내고 끝난다. 여기서 성폭행 피해자인 디나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그녀를 둘러싼 남성들 누구도 피해 당사자인 디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⁵⁾ 디나의 남자 형제들은 디나로 인해 자신들이 받은 치욕에 대한 복수와 그것을 이용해서 세겜의 재물을 빼앗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렇기에 성폭행당한 디나의 회복을 위해 어머니 레아와 의논하거나 디나의 의견을 묻는 대신 형제들끼리 의논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물론 야곱이 그들의 행동을 질책할 때 그들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31절)”라며 디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디나가 얻은 이익은 없다. 결국 디나는 결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야곱의 집에서 쓸쓸히 살다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다(창 46:15).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남성 연대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몰과 세겜이다. 하몰은 아들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후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자 철저히 아들 편에 선다. 그는 아들의 요청을

5)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137.

들어주기 위해 야곱과 디나의 남자 형제들을 만나러 왔고 그들에게 세겜이 디나를 마음에 둔 것과 결혼을 원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그리고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재물과 조건을 걸고 디나의 남자 형제들과 협상하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할례를 받게 하는 등 아들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하물은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거나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하지도 않고 아들 편에 서서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또한 이런 하몰과 세겜의 모습은 디나의 어머니 레아가 이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어머니 레아는 디나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한 번 언급되는데 디나를 레아의 딸로 소개하기 때문이다.⁶⁾ 하지만 딸인 디나가 곤경에 처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이 장면에서 레아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28절의 리브가의 결혼 장면을 보면 결혼 이야기는 리브가의 어머니 집에서 이루어지고 어머니도 그 장면에서 딸이 좀 더 머물기를 요청하기도 한다(53, 55절). ‘어머니의 집’이란 표현은 여기와 아가 3장 4절, 롯기 1장 8절에만 등장하는 매우 드문 표현으로 성(sexuality), 결혼,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성들과 관련된 본문에 나타난다.⁷⁾ 이렇게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된 세 용례는 모두 딸의 결혼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었기에 이 표현은 딸의 결혼에 어머니가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어머니 레아가 디나의 성폭행 사건과 결혼을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결국 어머니 레아가 등장하지 않음으로 성폭행 사건과 결혼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은 배제되고 여성의 이익을 대변해줄 목소리가 삭제되었고 이 사건은 남성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남자 형제들의 이익을 위해 사건이 진행되었다.

2) 기브아 성폭행 사건(삿 19장)

사사기 19장의 기브아 성폭행 사건은 레위인과 그 청이 기브아에 들어갔다가 청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사건이다. 19장에서 청이 화가나⁸⁾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인 레위인은 청을 데리러 왔다. 이때 사위인 레위인을 대접하는 것은 청의 아버지이다. 구약의 접대문화에서 남자 주인이 남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창 18장, 19장). 그렇기에 딸의 어머니는 장면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딸도 남편을 맞으러 나온 후 사라진다. 웨(Berry G. Webb)은 딸의 모습도 목소리도 사라졌으며 딸은 오직 두 남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고리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⁹⁾ 그리고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에 들어갔을 때도 기브아 노인만이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한다. 그러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자 레위인은 자신의 청을 끌어내 그들의 손에 넘긴다.¹⁰⁾

6) 이 구문은 bqo[.]y'l. hd"l.y" rv,a] ha'le-tB; hn"ydI(디나 바트 레아 아쉐르 안다 레야아코브)은 지역 하면 “디나, 레아의 딸,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로 특이하게 ‘레아의 딸’로 소개된다. 웬함은 디나가 레아의 딸이라는 말이 야곱이 디나의 사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고든 웬함, 「창세기16-50」 (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551. 원제는 Gorden J. Wenham, *Genesis 16-50* (Waco Taxas: Word Books, 1987).

7) 캐롤 A. 뉴셤, 샤론 H. 린지 엮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구약편」,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23. 원제는 Carol A. Newsom, Sharon H. Ringe,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8) 박유미, 「내려티브로 읽는 사사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33. 임효명도 ‘행음하다’ 보다는 ‘화내다’라는 번역을 지지한다.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구약논단」 83 (2022), 193 n. 14.

9) Berry G. Webb, *The Book of Judges*, (Grand Rapids: Eerdmans, 2012), 459-460.

10) 임효명은 원문에서 ‘vyaih’(하이쉬)로 기록한 것에 대해 레위인을 볼 것인지, 노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보여준 후 이런 모호성이 레위인과 노인이 모두 성폭행의 조력자임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해석하였다.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196-197. 하지만 정황상 레위인으로 해석된다. 참조 Webb, *The Book of Judges*, 468.

이 장면에서 기브아 노인은 위협받는 레위인을 위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첨을 내놓겠다며 적극적으로 레위인을 돋는 강력한 남성 연대를 보여준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듯이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한다. 노인의 이런 적극적인 보호는 레위인 장인의 극진한 대접을 연상시킨다. 이런 극진한 보호를 받는 레위인과 대조적으로 레위인이 첨을 끌어낼 때는 아무도 그녀를 돋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에는 기브아 노인의 딸과 아내가 있었지만 레위인 첨을 도울 경우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그들은 레위인 첨을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기브아 노인은 자신의 처녀 딸을 불량배의 제물로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삿 19:24). 이렇게 첨이 아니면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상황에서 여성 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이들은 본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 대신 남편인 레위인이 첨의 보호자로 행동해야 하는데 오히려 첨의 희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첨을 희생시킨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노인의 딸을 희생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¹¹⁾ 그러므로 이 본문 역시 남성 연대의 공고함과 여성 연대와 여성을 위한 보호자의 부재를 통해 약자인 여성의 희생자가 된 상황을 잘 보여준다.

3) 암논의 성폭행 사건(삼하 13장)

암논의 성폭행 사건은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여기서도 강한 남성 연대를 보여준다. 암논이 성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 그는 사촌 요나답과 아버지 다윗의 도움을 받는다. 요나답은 다말을 성폭행할 방법을 알려주었고 다윗은 다말을 암논의 방으로 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다말은 암논에게 내쫓기면서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남성 보호자들은 그녀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다윗은 화만 낼뿐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고 오빠 압살롬은 ‘잠잠하라’며 다말의 입을 막는다. 여기서 다윗이 암논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암논의 죄를 덮기 위한 것으로 그는 철저히 암논을 보호하였다.¹²⁾ 범죄가 일어난 후에도 남성 연대는 여전히 강고하였다. 반면에 이 본문에서도 다말의 어머니 마아가는 등장하지 않는다. 마아가는 다윗의 세 번째 부인으로 그술왕 달매의 딸로 소개된다(삼하 3:3). 그녀는 이름으로만 소개되고 이야기 속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그의 외할아버지 그술왕에게 도망간 것을 보면(삼하 13:37) 다말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직 살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아가는 다말을 위해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어머니 마아가의 친정인 그술왕에게 도망하도록 도운 것과 대조를 이룬다. 마아가는 다말 사건에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지만 압살롬 사건에서는 도망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다말은 피해자였어도 도움을 받지 못해 쓸쓸히 살아야 했지만 압살롬은 살인을 하고도 어머니의 도움을 톡톡히 받은 것이다. 여기서도 피해자 다말은 자신을 보호하고 대변해줄 어머니는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세 개의 성폭행 사건에서 여성은 대변할 어머니도 여성을 위한 보호자도 없었고 그 결과 성폭행 피해자들의 음성이 삭제되거나 무시되었으며 피해자의 이익은 무시되었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1)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133.

12)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박유미의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논문을 참조. 142-143.

3.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

곤란에 처한 딸들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구약 시대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구약 본문에서는 곤란에 처한 아들 혹은 아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어머니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정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라와 이삭(창 21장), 리브가와 야곱(창 27장), 밧세바와 솔로몬(왕상 1장), 수넴 귀부인과 아들(왕하 4장)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한다.

1) 사라와 이삭(창 21장)

사라는 오랜 불임의 시간을 보내다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는다. 그리고 이삭이 젖 떨 때가 되었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녀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명령한다. ‘내 쫓으라’로 번역된 동사 vrEG"(가래쉬)는 vr;G"(가라쉬)의 피엘 명령형으로 이는 사라가 요청이나 권유를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사라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누이라고 속여달라고 말할 때도, 바로와 결혼하게 될 때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는 침묵했지만 자기 아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었다. 이런 사라의 말에 대해 아브라함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반대하였지만¹³⁾ 사라는 물러서지 않았고 마침내 자신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된다. 즉,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삭이 모든 권한과 재산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사라는 아들을 위해 남편과 맞서는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⁴⁾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혼자 모든 재산과 권리를 얻게 된다.

2) 리브가와 야곱(창 27장)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다. 그리고 그녀는 사냥꾼인 에서보다는 조용하게 집에 있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 먹고 눈이 어두워지자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결심한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것은 매우 오래된 가부장적 관습으로 그를 상속자로 삼겠다는 의미이다.¹⁵⁾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탁도 들은 상황이라(창 25:23) 야곱을 상속자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다. 하나님의 신탁이 리브가의 결심에 당위성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13)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daom. rb'D'h; [r;YEW:(바이라 하다바르 메오드)로 직역하면 ‘그 일이 매우 악했다. 불쾌했다’이다.

14) 이런 사라의 모습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박해자의 모습으로 보이며 부정적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데 중심을 둔 해석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스마엘도 어머니 하갈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아내를 얻고 큰 부족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창 21:16-19, 21).

15)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다. 월키와 프레드릭스는 복과 장자권을 분리하여 이삭이 에서에게 주는 것은 복으로 신적 권위, 번영, 지배권이라고 보았고 장자권은 유산 상속이라고 보았다. 브루스 K. 월키, 캐시 J. 프레드릭스, 「창세기 주석」, (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676. 원재는 Bruce K. Waltke & Cathi J. Fredricks,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1). 천사무엘은 장자권과 축복권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축복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일종의 맹세행위로 보았다. 천사무엘, 「창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67-368.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입혀 에서처럼 치장시킨 후 이삭이 좋아하는 염소 고기 요리까지 만들어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낸다. 이때 야곱은 이 일이 들켜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지만 이마저도 리브가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라며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과 저주까지도 자신이 떠맡겠다고 나선다.¹⁶⁾ 그녀는 야곱을 위해 목숨이나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야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불이익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열성적인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리브가의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들 간에 싸움이 나고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야 했고 리브가는 다시 야곱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라와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아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결과가 항상 윤리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어머니의 모습은 가족 내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도 있고 실제로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디나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은 어머니 레아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밧세바와 솔로몬(왕상 1장)

밧세바는 원래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의 성범죄¹⁷⁾의 결과로 다윗의 아내가 된 인물이다. 그녀는 다윗에게 성폭행을 당할 때 다윗의 적극적인 행동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인물로 나온다(삼하 11:4).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남편의 죽음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무엘하 11장에서 보여준 밧세바는 자신의 의견을 한 번도 피력하지 않고 다윗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지극히 수동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왕상 1장)에서 밧세바는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다윗이 나이가 들자 학깃의 아들인 아도니야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달려가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와 솔로몬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 말을 들은 밧세바는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즉시 다윗에게 찾아가 자신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한 다윗의 약속을 언급한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에 밧세바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 또한 요압과 아비아달의 지지로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솔로몬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것은 아도니야가 왕이 되면 솔로몬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이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기다리고 있으니 왕이 다음 왕을 지정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죽은 목숨이라며 다윗을 압박한다. 이런 밧세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밧세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만든다. 비록 나단의 도움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어머니인 밧세바였다. 넬슨(Richard D. Nelson)은 이런 밧세바를 아들의 장래를 위해 필사적으로 분투한 어머니로 평가한다.¹⁸⁾

16) 웬함은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저주가 리브가에 갈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 말은 야곱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욕망의 잔인함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웬함, 「창세기 16-50」, 385.

17) 박유미는 이 사건을 다윗의 위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명명한다. 박유미, 「오늘 다시 만나는 구약 여성」, (서울: 헵시바, 2022), 44.

18) 리차드 넬슨, 「열왕기상·하: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김희권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4) 수넴 귀부인과 아들(왕하 4장)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귀부인¹⁹⁾은 엘리사에게 양식과 방을 제공한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여성이다. 그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즉,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리고 수넴 귀부인의 호의에 보답하고 싶었던 엘리사의 기도로 그녀는 아들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넴 귀부인은 아들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아들을 얻은 것은 순전히 엘리사의 감사와 호의로 인한 것이었다. 즉, 수넴 귀부인은 일반적인 불임 여성과 달리 아들을 갖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수넴 귀부인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아들을 얻을 때의 소극적인 모습과 달리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그녀는 아들이 자기 무릎 위에서 죽자 그를 엘리사의 방 침상에 누이고 엘리사에게 달려간다. 이때 남편은 그녀의 출발을 제지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²⁰⁾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간다. 수넴 귀부인이 마중 나온 게하시에게 대충 인사하고 바로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발을 붙잡는다. 그녀의 목적은 한시라도 빨리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기에 남편과 게하시의 말을 ‘샬롬’²¹⁾이란 한마디로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달려간다. 여기서 남편과 게하시의 긴 말(왕상 4:23, 26)과 수넴 귀부인의 ‘샬롬’이란 한 마디의 대조를 통해 수넴 귀부인이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엘리사가 모든 사정을 알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려 보냈을 때도 그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엘리사가 같이 갈 것을 강권한다. 그녀가 엘리사의 발을 잡은 것은 복종이 아니라 강요하는 행위이다. 그녀는 절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것은 엘리사가 같이 갈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결국 엘리사는 수넴 귀부인의 강요에 못이겨 수넴 귀부인 집으로 가서 아이를 직접 살린다. 수넴 귀부인의 빠른 판단과 행동과 굳센 의지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대해 라이스(Gene Rice)는 수넴 귀부인이 모성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한다.²²⁾

이렇게 왕정 시대에 나타난 두 어머니는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만들고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였다. 왕정 시대에도 어머니는 아들의 이익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아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4명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구약 시대에 어머니들이 가정 내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이며 양육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곤란에 빠진 딸 사건에 어머니가 부재한 것은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

2000), 49. 원제는 Richard 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Atlanta : John Knox Press, c1987).

19) 왕하 4:8에 ‘한 귀한 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hl'Adg> hV'ai*(이샤 계돌라)로 ‘위대한, 고귀한 뛰어난’이라고 번역되는데 모세(출 11:3), 다윗(삼하 5:10), 옵(옵 1:3), 모르드개(예 9:4)에게 이 단어 (가돌 IAdG”)를 붙였고 왕상 5:1에서 나아만은 남성형인 IAdG” *vyai*(이쉬 가돌)로 소개된다. 이 단어를 여성에게 붙인 용례는 여기가 유일하다. 그리고 때때로 이 단어는 ‘부유한’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RSV, NRSV). KJV은 ‘위대한(great)’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이라는 의미이고 NIV는 ‘유능한’으로 번역하였다. 참조, Gene Rice, “A Great Woman of Ancient Israel (2 Kings 4:8-37; 8:1-6)”, *The Journal of Religious Thought* 60-63 (2008-2010), 70.

20) 넬슨은 이것을 죽음을 맞이하는 다음 단계의 행동인 애곡과 매장을 추진하려는 남편의 행동을 막은 것으로 해석한다. 넬슨, 「열왕기상하」, 281-282.

21) 23절과 26절의 ‘평안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Alv'(샬롬)으로 이것은 일상적인 인사말로 수넴 귀부인은 남편의 말과 게하시의 인사에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자기의 길을 간다.

22) Rice, “A Great Woman of Ancient Israel”, 77.

는 문화 때문이라는 전제는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가정 내에서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볼 때 곤란에 빠진 딸의 사건에 어머니가 부재한 것은 어머니의 역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딸을 위한 어머니 부재 이유

구약에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언급하는 본문은 없는 반면 어머니는 항상 아들과 관련되어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아들의 양육자와 보호자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왜 어머니가 딸 이야기 속에서는 부재하고 오직 아들과만 관련되어 나타나는지 사회 구조적 이유와 신학적 이유를 찾아보려고 한다.

1) 남아선호의 가부장제 사회의 영향

훅스(Esther Fuchs)는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을 기반으로 구약 어머니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밀렛(Kate Millett)에 따르면 우리 사회 질서 안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생득적 우월성은 제도화되어 있으며 성의 지배는 우리 문화에 가장 널리 만연해 있는 이데올로기이며 가장 근본적인 권력 개념을 제공하는데 이는 모든 다른 역사 문명이 그려했듯 우리 사회 또한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²³⁾ 그리고 성의 정치학은 “양성이 기질이나 역할, 지위에 관하여 가부장적 형태로 ‘사회화’되는 과정을 통해 합의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²⁴⁾ 그리고 이런 가부장제의 주요 제도는 가족이며 엄격한 가부장제는 혈연관계에서 오직 남성의 가계만 인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⁵⁾ 즉, 밀렛은 성의 정치학을 통해 사회가 가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잘 드러내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훅스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모성 제도가 강력한 가부장적 메커니즘이며 부계 혈통과 일부일처 결혼(아내의 경우만)과 결합된 여성의 재생산 능력에 대한 남성의 통제는 아내를 남편의 독점적 재산으로 확보하고, 가부장제 관습과 부계 상속 패턴을 통해 남편의 이름과 가족 재산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하였다.²⁶⁾ 그리고 그는 탄생 예고에 대한 전형적 장면 연구를 통해 모성은 가부장제의 결과물이자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며 이것은 구약 어머니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난다는 고 보았다.²⁷⁾ 이런 훅스의 관찰과 주장은 왜 구약의 어머니가 아들과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고대 근동 시대는 아버지와 남편을 중심으로 가계를 형성하는 가부장제 사회였다.²⁸⁾ 그리고 이런 구조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약 시대는 아들들이 집안의 혈통과 이름을 계승하고 부모의 재산도 그들의 수중에 항상 남아 있으며 또한 딸들은 결혼함으로써 이제까지

23) 케이트 밀렛, 「성의 정치학」, (김유정 옮김), (서울: 샘앤파커스, 2020), 52. 원제는 Kate Millett, *Sexual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24) 밀렛, 「성의 정치학」, 54.

25) 밀렛 「성의 정치학」, 63.

26) Esther Fuchs, “The Literary Characterization of Mothers and Sexual Politics in The Hebrew Bible”, 160.

27) Fuchs, “The Literary Characterization of Mothers and Sexual Politics in The Hebrew Bible”, 160.

28) Victor H. Matthews, “Marriage and Family in the Ancient Near East”, in *Marriage and Family in the Bible World*, Ken M. Campbell ed.(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1-2

살았던 집에서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가세를 측정하는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²⁹⁾ 구약은 이런 가부장제³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딸보다는 부계 혈통을 이을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결과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계를 이을 아들을 낳고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어머니의 지위는 아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구약의 어머니들은 대개 아들을 원했다.³¹⁾ 구약에 나오는 불임 이야기를 보면 모든 어머니는 아들 낳기를 원하였고 딸을 원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예를 들어 불임으로 고통받은 라헬은 야곱에게 ‘나에게 아들들(~ynIb' 바님)을 달라’라고 요구한다(창 30:1). 한나는 특별히 ‘남자 아이(~yv'in'a] [r;z< 제라 아나심)’라고 말하여 아들을 달라고 분명히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불임 여성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신탁도 모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만 있다(창 16:11; 17:19; 삿 13:3). 이렇게 구약에서 아이를 원한 모든 어머니는 ‘아들’을 원했고 구약에 나타난 탄생 예고는 전부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였다.

또한 탄생 이야기에서도 아들의 탄생만 언급된다. 오직 레아의 딸 디나만 예외인데 레아가 디나를 낳고 이름을 지었다고 기록한다(창 30:21). 하지만 이름의 뜻을 붙여준 아들들과 달리 디나 이름의 뜻은 언급되지 않아 여기서도 차별이 나타난다. 그리고 가족의 수나 족보에도 거의 아들만 언급된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밤에 야곱의 가족이 압복 나루를 건널 때 ‘두 아내와 열한 아들’³²⁾만 언급하며 디나는 가족 수에서 제외된다. 이런 현상은 다윗의 자녀가 소개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ynIB 바님)만 소개한다고 말하고 3절에서 마아가의 소생으로 다말을 빼고 압살론만 언급한다. 그러므로 사실 다윗에게 다말 외에 몇 명의 딸이 더 있었는지 알 수 없다.³³⁾ 사울의 경우는 특이하게 세 아들의 이름과 함께 두 딸의 이름(메랍과 미갈)도 나오는데(삼상 14:49) 이는 다윗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거나 결혼하는 것으로 사울 내러티브 속에 등장하기에 예외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³⁴⁾ 이렇게 구약에서 어머니는 오직 아들을 낳길 원했고 하나님은 아들만 주셨고 족보에는

29) R. 드보,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 (이양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85. 원제는 Roland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60).

30) 블록(Daniel I. Block)은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인 면을 의식하여 가부장중심제(Patricentrism)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고 마이어는 남성중심제(Androcentrism)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문화 속에서 남성의 권력이 생산되었는지 설명하는데 더 적당한 표현이라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견해 모두 가부장제의 기본 요소인 남성의 가계를 중심으로 남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권한과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지만 퍼듀(Leo G. Perdue)는 남성중심제가 남성지배적이거나 가부장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남성중심제와 가부장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Daniel I. Block, "Marriage and Family in Ancient Israel", in *Marriage and Family in the Bible World*, Ken M. Campbell e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41-42. Carol Meyers, "The Family in Early Israel", in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ster John Knox Press, 1997), 34-35. Leo G. Perdue, "Household, Theology, and Contemporary Hermeneutics, in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ster John Knox Press, 1997), 246.

31) Fuchs, "The Literary Characterization of Mothers and Sexual Politics in The Hebrew Bible", 164.

32) 여기서 ‘아들들’은 히브리어 (dl,y< 엘레드)의 남성 복수형을 사용한다.

33) 역대상 3장 9절에는 다말이 다윗의 청들에게 태어난 아들들과 함께 다윗의 아들들의 누이로 소개된다. 브라운은 이를 다윗의 누이라고 말하며 유일한 누이이기에 기록했다고 하였지만 다윗의 누이는 2:16에 나오고 있으며 다말은 다윗의 딸로 그녀의 이름은 암논과 압살롬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 참고, 로디 브라운, 「역대상」, (김의원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138. 원제는 Roddy Braun, *1 Chronicles*, (Waxo, Texas: Word Books, 1986).

34) 메랍은 삼상 18:17에서 결혼 상대로 언급되다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사라졌다가 삼하 21:8에서 사울의 죄 때문에 죽은 사울 후손의 이름이 언급될 때 등장한다.

거의 아들만 기록되어 있다.

아들을 중요시하고 아들을 원하는 이런 남아선호사상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문화이다. 한국도 아주 오랫동안 시집간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들 낳기 과제’는 시가에서 적격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문이었으며, 가정 안팎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³⁵⁾ 이렇게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들에 대한 선호는 결국 그 사회의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상을 자신으로 것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김종군의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아들 낳기 강요는 그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욕망에서 기인하였으며 그 안에서 여성들은 마치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회가 고집하고 있는 아들 낳기 욕망이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그 억압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³⁶⁾ 즉, 사회 전체 구조가 남아선호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인 어머니들도 딸보다는 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게끔 교육받고 체화되고 이런 어머니에게는 사회적, 가정적으로 큰 보상과 인정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적은 구약 어머니가 왜 아들 낳기를 간구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된다. 그리고 모성애와 어머니의 역할도 사회화의 산물이기에³⁷⁾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고 아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자 의무로 여겨졌다. 그렇기에 앞에서 아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어머니들인 사라, 리브가, 밧세바, 수넴 귀부인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구약은 아들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역할을 아들을 위한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기에 딸을 위한 어머니 모습에는 관심을 두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구약에 선 딸을 위한 어머니의 목소리도 행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신학적 이유

또 한편으로 구약은 아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어머니 이야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사라가 이삭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하신다(창 21:12). 이것은 사라가 이삭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으로 본 것이다.³⁸⁾ 맥아더는 이삭을 위해 행동한 사라를 인내한 훌륭한 어머니로 극찬하기도 한다.³⁹⁾ 그리고 리브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지지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창 25:23)에 근거한 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물론 속임수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지만⁴⁰⁾ 그녀가 야곱을 위해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⁴¹⁾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

35) 김종군, 박재인, 이미화, “구술생애담을 통해 본 남,북,중 코리언 여성들의 아들 낳기 문제와 젠더 의식”, 「다문화콘텐츠연구」 33 (2020), 334.

36) 김종군 외, “구술생애담을 통해 본 남,북,중 코리언 여성들의 아들 낳기 문제와 젠더 의식”, 352.

37) 여성주의는 여성의 어머니 노릇이 선천적인 본능이 아니라 사회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역할 훈련론의 입장을 가진다. 이주아, “비혼과 비출산의 시대, 기독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생물학적 모성 담론에 대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74 (2022), 7.

38) 슈나이더의 경우 사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들은 서로를 지지해주는 공생관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Tammi J. Schneider, *Mothers of Promise- Women in the Book of Genesis*, (Grand Rapids, Mich. : Baker Academic, 2008), 40.

39) 존 맥아더,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75-79.

40) 웬함은 드라이버의 견해를 따라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가 전적으로 수치스러우며 옹호받을 수 없다고 평가한다. 웬함, 「창세기 16-50」, 396 재인용. 천사무엘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며 속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천사무엘, 「창세기」, 371.

41) 물러는 리브가의 행동을 하나님의 선택을 현실화시킨 영웅적 인물로 평가한다. Marry Lou

이 야곱에게 간다.⁴²⁾ 그리고 밧세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밧세바는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솔로몬을 왕을 세우겠다고 맹세한 것을 근거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압력을 넣는다 (왕상 1:17).⁴³⁾ 수넴 귀부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선택은 없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수넴 귀부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지지는 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즉,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적인 행동으로 읽히게 된다. 이렇게 구약의 가부장제 문화에 따른 남아선호와 본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지지가 아들을 원하고 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모성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회에서는 아들이 아닌 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최고의 임무는 아이를 잘 돌보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남아 선호가 흐려지길 하였지만 여전히 그 그림자가 짙게 남아 있다.

5. 여성을 위한 연대를 위하여

이 글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 예를 통해 곤란에 처한 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성을 위한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하려고 한다. 첫째는 곤란에 처한 딸들의 곤란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들을 지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어머니나 여성 보호자의 부재와 무관심하거나 남성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남성 보호자들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만일 곤란에 처한 딸에게도 그녀들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도와줄 어머니와 같은 보호자가 있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먼저 레아가 야곱을 위해 나선 리브가처럼 적극적으로 자식들과 남편에게 디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었다면 디나의 처지는 달라졌을 것이다. 일단 세겜의 사과를 받았을 것이고 성폭행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세겜으로부터 보상을 받을지 결혼할지 선택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인 디나는 분노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디나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은 세겜을 진멸하는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레위인의 청이 수넴 귀부인과 같이 자기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어머니의 보호를 받았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말의 어머니 마아가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다윗을 찾아가 약속을 지키라면 읍소한 밧세바와 같이 다말을 위해 다윗을 찾아가 읍소했더라면 다말의 상황은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아들을 위하는 만큼 어머니

Mueller, "Three mothers and the will of God", *U.S. Catholic* 61 (1996), 38.

42) 알기와 프레드릭스은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전달되었다고 평가한다. 월기 & 프레드릭스, 「창세기 주석」, 689. 웬함도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원칙 없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정황에서 구원의 역사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함으로 속임은 문제이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웬함, 「창세기 16-50」, 398.

43) 이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윌리스는 개인적 대화 속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실의 선전이라고 본다. Willis, "Conversation in the Succession Narrative of Solomon", 143. 넬슨은 이런 맹세가 반쪽만의 진실, 입증되지 않은 단정들, 조작된 확증으로 다윗을 속인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지지한다. 넬슨, 「열왕기상.하」, 51-52. 54. 드브리스는 왕위 계승 역사가의 중심적인 진리는 애웨가 아도니야를 꺾고 솔로몬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지했다고 결론 내린다. 시몬 J. 드브리스, 「열왕기상」, (김병하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158. 원제는 Simon J. DeVris, *1 Kings*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3).

가 딸을 위해 움직였다면 딸의 상황은 상당히 나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처럼 딸을 위해 행동했다면 딸들의 피해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다윗이 암몬의 아버지가 아닌 다말의 아버지로 행동했다면 다말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 피해자가 보호되고 그의 목소리가 전달될 때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더 큰 악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둘째는, 신약의 예들은 보호자의 존재가 딸의 곤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한 관리인 아버지⁴⁴⁾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께 절하며 간절히 요청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주신다(25절). 그런데 이 이야기는 수넴 귀부인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데 자녀의 죽음, 직접 와서 절함, 직접 오기를 요청함, 살아남이란 모티프가 공통으로 등장한다. 다만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란 관계만 다를 뿐인데 이런 대조를 통해 딸도 아버지로 대변되는 보호자가⁴⁵⁾ 도와주면 상황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가나안 여자가⁴⁶⁾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면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며 쪘아다닌다. 그런데 예수는 본인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며 그녀를 개 취급하며 요청을 모질게 거절하신다(26절). 하지만 가나안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면 모진 말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예수는 그녀를 칭찬하며 딸을 고쳐주셨다(30절). 가나안 어머니는 곤경에 처한 딸을 구하기 위해 개인적 자존심뿐만 아니라 관습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넘어 과감히 행동했다. 이 두 예에서 곤란에 처한 딸을 돋기 위해 나선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에 딸들이 생명을 얻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신약은 예수를 통해 곤란에 빠진 딸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과 도움을 받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약에서 딸들을 살리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것은 딸이냐 아들이냐를 떠나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대접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⁴⁷⁾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의 잔재인 남아선호사상이 남아 있고 그 영향으로 많은 어머니가 아직도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하지만 점점 사회는 딸과 아들에 대한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변화에 가장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교회가 가장 강고한 가부장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녀 차별의 문제나 교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남성 목회자, 남성 중직자의 공고한 남성 연대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때 여성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말이 성폭행당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오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것과 현재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변화되려면 차별받고 고통 받는 여성의 도울 어머니와 보호자와 지지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 안에 여성을 위한 연대와 보호가 있을 때 여성들도 피해자로 차별받는 딸로 계속 남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44) 마가복음 5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는 이 사람을 야이로라고 소개한다.

45) 이 아버지의 모습은 딸을 전혀 돋지 않았던 야곱과 다윗의 모습과 대조된다.

46) 마가복음 7장 26에서는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로 소개된다.

47) 신약은 오히려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은 한 번(마 17:15-18) 밖에 나오지 않는 것도 관찰되는데

이것은 구약의 아버지와 남성 보호자의 모습과 신약의 예수의 모습과의 대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김이곤, “다윗의 딸 다말 애도송-지혜를 능욕하는 왕권을 고발하며”, 「기독교사상」 30 (1986), 95-144.
- 김종군, 박재인, 이미화, “구슬생애담을 통해 본 남,북,중 코리안 여성들의 아들 낳기 문제와 젠더 의식”, 「다문화콘텐츠연구」 33 (2020), 331-368.
- 넬슨, 리차드, 「열왕기상.하: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김회권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원제는 Nelson, Richard D., *First and Second Kings* (Atlanta : John Knox Press, c1987).
- 드보, R.,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 (이양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85. 원제는 Roland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60).
- 드브리스, 시몬 J., 「열왕기상」, (김병하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원제는 DeVris, Simon J., *1 Kings*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3).
- 존 맥아더,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 밀렛, 케이트, 성의 정치학, (김유정 옮김), (서울: 샘앤파커스, 2020), 원제는 Millett, Kate, *Sexual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24 (2018), 125-155.
- 박유미,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박유미, 「오늘 다시 만나는 구약 여성」, (서울: 햅시바, 2022).
- 브라운, 로디, 「역대상」, (김의원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원제는 Braun, Roddy, *1 Chronicles*, (Waxo, Texas: Word Books, 1986).
- 윌키, 브루스 K., 프레드릭스, 캐시 J., 「창세기 주석」, (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원제는 Waltke, Bruce K., Fredricks, Cathi J.,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 Zondervan, 2001).
- 웬함, 고든, 「창세기16-50」(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원제는 Wenham, Gorden J., *Genesis 16-50* (Waco Taxas: Word Books, 1987).
- 이주아, “비혼과 비출산의 시대, 기독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생물학적 모성 담론에 대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74 (2022), 1-31.
-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구약논단」 83 (2022), 188-230.
- 천사무엘, 「창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최란, “온/오프를 넘나드는 남성연대와 성폭력”, 「여성이론」 제 40호(2019), 210-219.
- 캐롤 A. 뉴섬, 샤론 H. 린지 엣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구약편」,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는 Newsom, Carol A., &Ringe, Sharon H.,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Andreasen, Niels-Erick A., “The Role of the Queen Mother in Israelite Society”, *CBQ* 45(1983), 179-194.
- Block, Daniel I., "Marrige and Family in Ancient Israel", in *Marrige and Family in the Bible World*, ed. Ken M. Campbel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 Bridge, Edward J., "A Mother's Influence: Mothers Naming Children in the Hebrew Bible", *VT* 64 (2014), 389-400.
- Fuchs, Esther, "The Literary Characterization of Mothers and Sexual Politics in The Hebrew Bible", *Semeia* 46 (1989), 164.
- Jero, Christopher, "Mother-Child Narratives and the Kingdom of God: Authorial Use of Typology as an Interpretive Device in Samuel-King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5.2 (2015), 155-169.
- Victor H. Matthew, "Marriage and Family in the Ancient Near East", in *Marrige and Family in the Bible World*, ed. Ken M. Campbel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 Meyers, Carol, "The Family in Early Israel", in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ster John Knox Press, 1997).
- Mueller, Marry Lou, "Three mothers and the will of God", *U.S. Catholic* 61 (1996), 38-40.
- Perdue, Leo G., "Household, Theology, and Contemporary Hermeneutics, in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ster John Knox Press, 1997)
- Rice, Gene, "A Great Woman of Ancient Israel (2 Kings 4:8-37; 8:1-6)", *The Journal of Religious Thouht* 60-63, (2008-2010), 69-85.
- Schneider, Tammi J., *Mothers of Promise- Women in the Book of Genesis*, (Grand Rapids, Mich. : Baker Academic, 2008).
- Webb, Berry G., *The Book of Judges*,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12)

제29기 한국여성신학회 사업보고

제29기 한국여성신학회는 임원회기(2022년 5월28일 ~ 2024년 5월25일) 동안, 2회의 학술회 및 신진학자 발표회 개최, 2회의 한국기독교학회 참석 및 발표, 2회의 신년하례회, 1회의 정기총회, 그리고 여성신학사상 제15집 『연대하는 여성신학』을 출간하였습니다. 회기 동안 주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1회 한국기독교학회 정기학술회

일시: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오전9시30분-17시

장소: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신학과 교회의 역할과 과제”

< 여성신학회 발표 >

좌장: 강희수 박사(서울신대 외래교수)

자유발표: 이주아 박사(이화여대)

“미디어 권력의 주체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메타버스 시대의 기회, 여성신학과 여성주의 기독교교육을 중심으로”

논찬: 한경미 박사(한신대 겸임교수)

< 신진학자 포스터 전시 >

김세희 박사(보스턴대 박사, 구약)

2. 2023년 신년하례회

일시: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새길교회

주제: “함께 구상하는 한국여성신학 학회의 미래”

사회: 백소영 박사(제29기 여성신학회 회장)

패널: 김정숙 박사(제27기 여성신학회 회장), 이영미 박사(제28기 여성신학회 회장), 강호숙 박사(제29기 여성신학회 편집위원장)

3. 정기 학술회 및 신진학자 발표회

일시: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오전10시

장소: 새길교회

< 1부: 정기 학술회 >

이인미 박사(성공회대 연구교수,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연구실장)

“기후위기에 대한 집합적 책임과 ‘용서’: 생태여성주의의 ‘탈젠더화’와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비교”

김성희 박사(안산대 교수)

“생태여성학적 성서해석으로 읽는 마리아의 노래”

< 2부: 신진학자 학술발표회 >

김세희 박사(보스턴대 박사, 구약)

“잠언 8:22-31에 등장하는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새로운 고찰”

김경희 박사(감신대 박사, 목회상담)

“한국 여성의 ‘우리’개념에 대한 여성주의 목회신학적 성찰”

4. 제52회 한국기독교학회 학술대회 (50주년 기념)

일시: 2023년 11월4일 (토) 오전 9시30분-17시

장소: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 기념예배당

주제: 대전환 시대, 신학교육의 변화를 말하다

< 여성신학회 발표 >

좌장: 진미리 박사(감신대)

주제발표: 백소영 박사(강남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 신학 교육의 미래”

논찬: 조현숙 박사(서울신대)

자유발표: 김순영 박사(미주장신대)

“구약 잠언의 여성 지혜와 도덕경의 도(道)의 여성성 비교”

논찬: 이은애 박사(이화여대)

5. 2024년 신년하례회

일시: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오전10시-오후13시

장소: 새길교회 (서울시 중구 통일로114 바비엥2 지하10호)

사회: 백소영 회장

< 1부 교육위원회 발표 >

주제: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여는 여성신학"

(강희수 박사, 이주아 박사, 한경미 박사, 김나경 박사)

< 2부 신진학자 발표회 >

김용은 박사(연세대)

""은닉대본'이론을 통해 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막7:24-30)"

6. 출판기념 학술회 및 정기총회

일시: 2024년 5월25일 (토)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새길교회

< 1부: 출판기념 학술회 >

사회: 강호숙 박사(한국여성신학회 편집위원장)

발표: 박유미 박사(안양대학교 겸임교수)

“딸을 위한 어머니는 없었다”

< 2부: 정기총회>

제29기 한국여성신학회 회의록

한국여성신학학회 신구임원 교체식 및 1차 임원회의

- 장소: 남산 더 힐스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3)
 - 일시: 2022년 7월 8일 11시-2시 30분
 - 참석자: 7명
- 28기 임원단: 총무 김혜령, 편집위원장 조현숙, 회계 김나경
29기 임원단: 회장 백소영, 총무 진미리, 편집위원장 강호숙, 교육위원장 이주아

1. 신구임원 교체식

11시 남산 야외식물원 주차장 입구에 집결한 후 숲속 산책
12시 남산 더 힐스 정원 레스토랑 식사와 담소 나눈 후, 인수인계

1) 총무 인수인계

<여성신학 사상집>을 보관해둔 이화여대 여성신학연구소를 방문하여 보관 물품 확인 작업을 28기, 29기 총무가 함께 하기로 함. 향후 여성신학 사상집 잔여 분량을 이화여대 여성신학연구소에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

2) 편집위원장 인수인계

- ① 지난 3년간 사상집 잔여분 인수함. 사상집 잔여분은 회장이 보관함.
 - 보관 내역 : 『혐오와 여성신학』 15권, 『자본주의 시대,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읽다』 13권
『치유와 여성신학』 55권 (65권 인수해서 10권은 29기 새 임원단 증정)
- ② 주제선정과 집필진 확정, 원고 청탁, 수집과 출간까지의 타임라인(Timeline)은 28기 일정이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함.
- ③ 전 편집위원장과 상의하여 편집위원으로 박유미, 김순영, 2명 더 초청한 후 모임을 통해 진행하기로 함.
- ④ 편집위원 단톡방에 편집위원장 외에 회장과 총무가 참여하기로 함. 그러나 실무는 편집위원회의 역할로 주관권을 부여함.

3) 28기 임기 동안 시작되었던 안병무 박사 사상 학술대회

- ① 한국여성신학학회 공식 참여 건에 대해 김나경 박사가 발의함. 지속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는 29기 임원단 회의의 결정하기로 함.
- ② 2022년 10월 17일에 개최되는 모임에서 사회를 여성신학학회에서 맡기로 함으로써 29기 진미리 총무가 분과 사회자로 참여하기로 함. 발표자로 학회원 김나경(28기 회계), 정혜진(기여민 연구실장), 홍다은(이화여대 신학과 석사) 확정됨.

2. 29기 임원 1차 임원회의

1) 새로 발족한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

- ① 역할 : 1세대 여성신학자들이 남긴 유산들을 잘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 및 교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제작 등을 주관하는 것
- ② 구성원 : 위원장 - 이주아 박사
위원 - 한경미 박사(서기)를 제안하였고, 수락은 연락 후에 확정하기로 함.
김나경 박사는 모임에서 개인 의사 밝혔고, 위원장과 논의함.
향후 2명 더 초빙할 예정이며, 선정은 교육위원회에 독자권을 부여 하기로 함.
- ③ 28기에 개설한 유튜브 채널 "Feminist theology Korean Association of" 을 통해 유용한 콘텐츠 제작, 업로드 및 1세대 신학자의 사상과 업적을 소개 등 활용하기로 함.
- 사전 확인 : 채널명이 노출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전치한 것인지 확인 필요함.

2) 총무 업무 조정

- ① 총무 업무가 과도했다는 판단하에, 29기 총무의 역할은 전체 진행에 대한 팔로우업 (follow up) 업무를 진행하기로 함. 다만, 각각 위원회와 서기, 회계 업무는 담당자가 진행함.
- ② 29기 총무는 다음(Daum)카페에 아카이빙 필요성이 있는 문서 업로드(upload)를 전담하고, 공문 최종 발송 업무를 담당하기로 함.

3) 회원 관리 및 주소록 업데이트

- ① 반송되는 이메일이 많아서 확인 작업이 요청됨. 다소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서기 업무이므로 총무와 서기의 관할 하에 진행하기로 함.
- ② 10월 정기 학회 전까지는 1차적으로 작업 완료하기로 함.

4) 회계 업무

28기에 두 통장으로 관리되던 자금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함.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 7979-48-54709

5) 후원 활동과 자금 활용 건

- ① 이화여대의 정기후원(매달 10만원)과 단발성 후원으로 소망교회(예장), 주안교회(예장), 강남교회(기장) 확답받음.
- ② 임원진에서 후원 요청 공문 본문을 회람하여 확정하였고, 7월 12일 이후에 발송하기로 함.
- ③ 공문 발송은 회계가 담당하기로 함.

3. 10월 제51차 한국기독교학회 정기학술대회 준비 건

1) 한국기독교학회 일정

- ① 일시: 2022년 10월 29일(토, 1일 진행)
- ② 장소: 장로회신학대학교(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대면으로 진행
- ③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신학과 교회의 역할과 과제”

2) 주제발표와 지학회 자유 주제 발표자 지원에 관한 건

< 지원내용 >

- ① 모집인원: 지정주제 1명, 자유 주제 1명, 총 2명
- ② 발표시간: 10월 29일 토요일(당일) 오후 2:00-3:30 (지학회-여성신학회-에서 진행)
- ③ 지원방법: 7월 17일 (일)까지 A4 한 장 이내의 프로포절을 이메일(jjdgi@hanmail.net)로 제출
- ④ 접수 및 문의: 진미리 총무 (010-2942-8046)

3) 발표 주제선정에 관한 건

- ① 포스트 코로나라는 현재 상황이 주는 변화를 여성 신학적인 시간으로 담아낼 수 있는 주제로 선정
- ② 이를 위한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아래의 하위주제를 참고

< 하위주제 >

- “포스트 코로나 사회와 교회에 던지는 생태 여성신학적 제언”
- “초연결 세계-메타버스, 공유사회-의 도래에 대한 여성 신학적 고찰”
- “포스트 코로나 사회와 교회에 관한 조직신학(성서신학, 윤리학, 기독교교육학 등)적 관점의 연구”

4) 발표자 신청공문 발송 건

1차 신청공문 전체메일로 발송하고, 2022년 7월 17일을 마감하기로 함.

4. 한국기독교학회 키노트스피커 추대 건

한국기독교학회 키노트스피커에 이영미 28기 전 회장을 추대함.

임원회의 후, 중앙임원회에서 전공(구약)이 겹치는 문제를 제기하여, 이영미 전 회장에서 김정숙(감신대 조직신학 교수)으로 추대 변경함.

2차 임원회의

- 목적: 한국기독교학회 여성신학회 발표자 선정
- 일시: 2022년 7월 26일 9시
- 장소: Zoom meeting
- 참석자: 5명
 - 회장 백소영, 부회장 강희수, 총무 진미리, 편집위원장 강호숙, 서기 한경미
 - * 교육위원장 이주아, 회계 장양미는 Zoom meeting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단톡방에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반영함.

1. 제51차 한국기독교학회 정기학술대회 준비 현황.

- 1차 신청공문 전체메일로 발송 : 7월 17일 마감
- 2차 신청공문 전체메일로 재발송 : 7월 24일 마감
- 총 4명(이난희, 이주아, 김나경, 유한나)의 프로포절이 등록됨.
- 7월 27일 발표자를 확정하기로 하였기에 7월 26일 밤 9시 2차 임원 회의(Zoom meeting)를 함.

2. 한국기독교학회 여성신학회 발표자 선정에 관한 건

1) 발표자 선정기준

① 3년 이내 공동 학회에 발표하지 않은 지원자 우선 선정

- 이난희 박사 28회기 첫 한국기독교학회 발표자였기에 이번 학술제 발표자에서 제외함.
- 김나경 박사와 유한나 박사는 28회기 신진학자 학술회에서 발표하였으나 공동 학회에서는 발표하지 않았기에 제외 대상은 아님.
- 김나경 박사는 동월인 10월 17일 안병무 학술제 발표자이지만, 공동 학회가 아니므로 제외 대상은 아님.

② 지원자들의 주제와 공동 학회 주제와의 적합성 여부

- 이난희 (한신대 여성신학 박사, 여신협 홍보출판위원장)
“가족 수호인가, 가족 통제인가?: 한국교회의 가족 담론 변화에 대한 여성신학적 연구
『새가정』을 중심으로”
- 김나경 (한신대 영성신학 박사)
“팬데믹 이후 교회와 여성생태영성에 관한 연구: 중세 여성교회박사들의 생태영성을 중심으로”
- 이주아 (이화여대 기독교교육학 박사, 이화여대 강사)
“포스트코로나, 메타버스의 시대, 여성신학을 위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적 제언”
- 유한나 (클레어몬트 대학교 종교와 여성학 박사)

“펜데믹 이후 글로벌 위기 속 한국교회의 신앙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생태여성학적 기독교 신학과 영성의 회복”

⇒ 지원자들의 주제에 대한 의견)

- 김나경 박사의 연구 주제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중세 시대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이기에 오늘날 신학과 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연결하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 이주아 박사의 연구 주제는 지정주제와 오늘날 시대적 요청에는 부합하지만, 프로포절에서 주제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다.
- 유한나 박사의 주제는 공동 학회의 방향에는 부합하지만, 제목과 프로포절에서 광범위한 담론을 언급하고 있어서 논리적 전달을 위해 주제를 좁혀야 하는 점과 생태여성학적 접근이 생태여성신학적 관점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③ 논문 발표자 1인 또는 2인

학술제가 2일에서 1일로 축소됨으로써 보다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발표자를 1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2인으로 할 것인지 의견을 모음.

- 1안) 지정주제 1편과 지학회에서 정한 자유 주제 1편, 총 2편을 발표하여 다양한 소재와 관점이 소개되도록 발표하자는 의견.
- 2안) 지정주제 1편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나누고, 연구자들 간에 최근 연구 주제와 친교를 나누는 여유로운 시간을 갖자는 의견.
- 결정 : 다수결로 지정주제 1편으로 결정함.

2) 논문 발표자 및 논찬자 결정

- ① 최종적으로 이주아 박사와 유한나 박사 중에서 임원진의 다수결로 이주아 박사로 선정함.
- ② 논찬자는 이주아 박사의 주제가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것이기에 동일한 전공자인 한경미 박사가 하기로 함.
- ③ 이주아 박사에게 제목을 지정주제에 적합하도록 수정할 것을 회장이 요청하기로 함.

3차 임원회의

- 목적: 여성신학 사상집 시리즈 제15집 편집 및 송년회 준비
- 일시: 2022년 10월 29일 2시
- 장소: 장로회 신학대학 북카페
- 참석자: 6명
 - 회장 백소영, 부회장 강희수, 총무 진미리, 편집위원장 강호숙, 교육위원장 이주아, 서기 한경미
 - * 회계 장양미는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회계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함.

< 안건 >

1. 여성신학 사상집 시리즈 제15집 편집에 관한 건

1) 현재 여성신학 사상집 잔여분 확인

사상집 잔여분은 회장이 보관함.

- 보관 내역 : 『혐오와 여성신학』 15권,
『자본주의 시대,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읽다』 13권
『치유와 여성신학』 55권 (65권 인수해서 10권은 29기 새 임원단 증정)
총 83권

- 10월 29일 집계 : 후원교회 전달 - 주안장로교회 3권, 강남교회 3권
편집위원들에게 전달 - 6권
신진학자 김세희 박사에게 전달 - 3권
김정숙, 서현진 박사에게 전달 - 2권 (치유와 여성 신학)
『혐오와 여성신학』 10권
『자본주의 시대,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읽다』 8권
『치유와 여성신학』 48권
총 66권

2) 여성신학 사상집 시리즈 제15집 방향

진보와 보수의 다양한 시각의 균형과 집필진이 활동해 온 과정에서 인식한 기독 여성주의의 관점과 이해가 표현되게 함.

서술 방식은 논문과 에세이 중간쯤의 성격으로 함.

3) 집필진 선정

- (1) 10월 29일 이전에 확정된 집필진 : 최순양, 김혜령, 구미정 (제14집의 필진은 총11명)
- (2) 예정된 집필진과 주제 : 주제는 10월 29일 현재 모든 집필진이 확정된 것은 아님.

- ① 김순영: 호세아서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읽기
- ② 강호숙 : 보수기독교 내 젠더 인식과 젠더 문제 - 성경적 페미니즘의 필요성
- ③ 김혜령 : 임신중절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기
- ④ 최순양 : 조직신학과 관련하여
- ⑤ 구미정 : 생태 여성주의와 관련된 것 (4가지 주제를 강호숙 편집위원장에게 보냄)
- ⑥ 한경미 : 교회교육 교재 안에 나타나는 젠더 인식과 관련하여
- ⑦ 백소영 : 교회에 기독여성주의 담론의 문제
- ⑧ 이주아 : 비혼과 비출산이 죄인가?
- ⑨ 박유미 : 엄마의 부재와 딸의 비극- 디나와 다말사건을 중심으로
- ⑩ 김수연 : 조직신학과 관련하여
- ⑪ 김정숙
- ⑫ 김성희

4) 진행

- (1) 집필진과 가제목(주제)을 임원방에 공유함.
- (2) 집필진 단톡방 개설한 후, 위촉장의 형식을 갖춘 내용을 전달함.
- (3) 원고 마감 : 2023년 여름방학 중반(7월 말)쯤으로 1차 원고 마감.
이후 원고 수정을 거쳐 2023년 겨울에 탈고하여 출판하기로 함.

2. 송년회 준비에 관한 건

1) 2022년 송년회를 2023년 신년 하례회로 변경

12월 송년회는 회원들과 준비하는 임원들 모두가 바쁜 가운데 있어, 2023년 1월 신년 하례회를 하여 여유로운 만남을 갖고자 함.

2) 예정 일시 :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3) 예정 장소 : 청어람 홀

4) 진행

- 1부 : 여성 신학회 향후 비전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 - “전(前) 회장들에게 듣는다.”(가제)
여성신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아쉬움, 과제, 방향 제시 등을 토크 형식으로
나누면서, 향후 여성 신학회 비전을 공유하고자 함.
26기 이숙진, 27기 김정숙, 28기 이영미 전(前)회장을 섭외할 예정으로, 참여 여부와
일정을 확인 후 신년 하례회 일정을 확정하기로 함.

- 2부 : 친교 나눔

< 보고 >

1. 회계 보고

여성신학회 29기 회계 자료 (2022.6.3. 새 통장 개설 이후 입출금 거래 내역 보고)

작성 : 회계 장양미

작성일 : 2022.10.28

항	목	금액	세부내역
수 입	이월금	10,441,693	
	전 회기 추가이월	101,783	이화대학교회 후원금 10만원 +이자 1,703원
	주안장로교회	3,000,000	후원금
	강남교회	300,000	후원금
	이화대학교회	400,000	후원금 100,000*4 (정기후원)
	한국기독교학회	500,000	후원금
	카뱅	3,006	이자
	수입 합계	14,746,482	
지 출	김혜령	-27,000	여신회 전임 회기 물품 발송 택배비
	백소영	-331,500	신구임원 교체식 1차 임원회 회식비
	장양미	-39,500	여신회 직인 제작 및 인주 구매
	지출 합계	-398,000	
잔 액		14,348,482	

(* 수정 : 회계가 작성한 표에 내역 구분표시를 하기 위해 “항”, “목”, “세부 내역”을 넣어 표 양식 수정.

수입과 지출의 차감 금액을 “총합” 대신 회계장부 양식에 맞게 “잔액”으로 명시함)

2. 교육위원회 보고

1) 교육 기획

- (1) 주제 : 엄마와 땔이 함께 듣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성"(가제) 교육
- (2) 교육 진행 형식 : Zoom으로 진행 예정,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할지는 향후 논의예정.
- (3) 홍보 채널 : 임원에게 협조 부탁 및 여신협과의 콜라보 형식으로 주최 논의 중임.
- (4) 컨텐츠 : 평신도 여성이 함께 하는 자리이기에 교회 친화적이면서도 신앙 성향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임.
- (5) 부회장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함께 활동하기로 함.

4차 임원회의

- 목적: 2023년 신년 하례회 준비
- 일시: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7명
 - 회장 백소영, 부회장 강희수, 총무 진미리, 편집위원장 강호숙, 교육위원장 이주아, 서기 한경미 회계 장양미

< 안건 >

1. 2023년 신년 하례회 준비 결정 사항

- * 임원 단톡방에서 의견 나눔을 통해 결정된 사항 확인
- 1) 일시: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오전10시 - 오후1시
- 2) 장소: 공간 새길 (12월 14일 현재 계약 확정. 비용 미지급)
- 3) 주제: “함께 구상하는 한국여성신학 학회의 미래”
- 4) 사회자: 회장 백소영

2. 2023년 신년 하례회 진행방식

1) 형식

한국여성신학회의 미래전망에 관해 선후배가 함께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

2) 패널 및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

① 이영미 전 회장, 김정숙 전 회장 섭외 : 회기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유의미한 사건들,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는 말 등 친근하게 전달하는 분위기를 백소영 회장이 요청함.

② 그 외 패널 섭외 및 진행방식

(예시1) 청중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질의응답 받기.

(예시2) 신진학자를 초청해서 역할을 주어 무대에 시니어와 주니어를 균등하게 배분.

(예시3) 지난 회기에 여성신학회에서 지원받아 발표했던 홍다은, 임령진 씨를 초대하기

(예시4) 여성신학회 경험 있는 학자 초대하여 이야기 나눔. (예 : 김혜령, 정혜진 박사)

(예시5) 보수성향의 여성신학자들(예 : 편집위원들)이 참여하여 이야기 나눔.

(예시6) 다양한 성향과 관점, 방향성을 가진 분들을 초대.

⇒ 결정)

① (예시1)처럼 청중과 소통하는 진행방식과 아울러 한국여성신학회의 발전과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예시5)와 (예시6)의 방향으로 가기로 함.

② 패널로 강호숙 편집위원장 외에 후보로 김성희 박사, 조지윤 박사, 임현진 박사 중 1인을 섭외하기로 함. → 12월 15일~17일 섭외 결과 후보 3명 모두 개인 일정으로 참석 불가.

③ 패널로 이영미 전회장, 김정숙 전회장, 강호숙 편집위원장 3명으로 결정. (12월 17일 임원 단톡방)

3) 토크 콘서트 후 친교 시간

① 식사 장소로 식후 교제를 약 2시간 정도 나눌 수 있는 곳 선정하기

② 친교 시간 갖기 : 행운권 추첨, 자기소개, 레크레이션 (진행 : 진미리 총무)

③ 토크 콘서트 참가자 사례 : 신년과 관련된 부담되지 않는 선물. (예전 토크 콘서트 경우 성탄절과 관련된 포인세티아 화분을 선물로 증정함)

3. 기타 안건

1) 편집위원회 저자 위촉장 발송 여부 확인 요청

→ 12월 15일 아주아 교육위원회가 확인 결과 위촉장을 받은 사례가 없었음을 단톡방에 전달함.

→ 편집위원회에서 위촉장 발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5차 임원회의

- 목적: 2023년 여성신학회 방향 및 주요 사업 논의
- 일시: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신년하례회 후 모임.
- 장소: 공간 새길
- 참석자: 6명

회장 백소영, 부회장 강희수, 총무 진미리, 편집위원장 강호숙, 서기 한경미, 회계 장양미

* 여성신학 사상집 잔여분 확인

2022년 10월 29일 집계 : 총 66권

12집 『혐오와 여성신학』 10권 / 13집 『자본주의 시대,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읽다』 8권

14집 『치유와 여성신학』 48권

① 2023년 1월 14일 사상집 전달 : 12집(5권), 13집(5권), 14집(7권)

박유미 박사 : 13집, 14집 / 강희수 박사 : 12집, 13집, 14집

백선영 기자(기독교신문) : 14집 / 강호순 박사 : 12집, 13집, 14집 (각 2권씩)

한경미 박사 : 12집, 13집, 14집 / 공간 새길 간사 : 12집, 14집

② 2023년 1월 16일 사상집 전달 : 소망교회 - 12집, 13집, 14집 (각 1권씩)

③ 현재 잔여분 : 총 46권

12집 『혐오와 여성신학』 4권 / 13집 『자본주의 시대,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읽다』 2권

14집 『치유와 여성신학』 40권

< 안건 >

1. 2023년 봄 정기 학술제

1) 기존 3월 신진학자 발표를 2023년 5월 봄 정기 학술제에 함께 진행하기로 함.

(1) 통합 사유 : 여성신학회가 규모와 재정 면에서 크지 않고, 등재 학술지를 생산하는 학회가 아니기에 자주 모이는 것에 대한 임원이나 회원 부담을 덜고자 함. 또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학술대회여야 실적이나 기타 내외적 홍보 효과가 있기에, 이번 29기에는 일단 3월 신진학자 발표를 5월 정기 학술제로 통합하기로 합의함.

(2) 일정 : 2023년 5월 13일 (토) → 변경 : 2023년 5월 20일 (토)

변경 사유 : 신진학자 김세희 박사 업무 일정으로 변경함(1월 16일 단톡방에서 결정).

(3) 신진학자 발표 추천

① 김세희 박사 “잠언의 여성 지혜”, 논찬 : 김순영 박사

② 김경희 박사 “‘우리’ 개념에 대한 목회 상담학적 연구”, 논찬 : 미정

⇒ 향후 주제를 다듬기로 함.

2) 주제

생태와 환경, 기후위기와 관련된 경제, 정치적 현안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제.

가제 - “지구위기와 여성 신학”

3) 중견 학자 발표

(1) 추천 : 이인미 박사 (새가정 편집위원장)

강현미 박사 (생태여성신학자)

이현아 책임연구원 (한국교회환경연구소)

(2) 발표자 선정 방식 (1월 16일 단톡방에서 의논함)

① 다수의 추천자를 받고 그중 2~3명을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의뢰하는 방식.

② 학회원에게 공지 후 프로포절을 받아 임원회에서 논의, 결정, 의뢰하는 방식.

⇒ 위의 두 가지 방식을 두고 회장, 부회장, 총무가 상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3) 발표 방식

① 논찬을 불이지 않고, 발표시간을 40~45분을 할애하여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논의하는 형태로 하기로 함.

② 주제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발표자를 분배하기로 함.

③ 발표비를 전임 10만원, 비전임 30만원, 논찬과 좌장은 각 10만원으로 산정함.

비전임의 경우 사상집에 게재한 글을 발표할 때는 20만원으로 함.

(* 사상집 원고는 다른 곳에 게재된 것도 가능하며, 원고료는 10만원 임.)

2. 가을 공동학회 참여 방식에 대한 건

1) 2023년 가을 공동학회가 2일 일정일 경우 - 통상 오후 2시 시작

(1) 오전에 여성신학회 모임을 갖고, 오후에는 회원들이 소속된 분과에 참여하는 방식.

(2) 공동학회 일정에 따라 시작하여 지학회 모임 시간에 여성신학회 모임을 갖는 방식.

2) 2023년 가을 공동학회가 1일 일정일 경우 - 2022년 경우 오전 10시 시작

(1) 2022년 가을 공동학회처럼 공동학회 스케줄에 따라 참여하는 방식.

(2) 오후 지학회 시간에 회원들이 소속된 분과에 참여하고, 여성신학회 가을 학술제를 다른 일정을 정해 진행하는 방식.

⇒ 각 방식에 대한 장, 단점을 인지한 후, 향후 결정하기로 함.

3. 여성신학회 정체성과 성명서 발표에 관한 건

1) 문제 제기

(1) 지난 28기인 경우,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국여성신학회가 잣은 성명을 발표하여 정체성을 드러냄. 그러나 이러한 행보로 인해 회원 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함.

(2) 한국여성신학회가 보수 교단의 회원도 참여하여 스펙트럼을 넓히고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함. 따라서 지난 회기처럼 진행될 경우, 보수 교단의 회원 참여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제도권 아래에 있는 회원들에게 많은 제약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음.

(3) 성명서 발표가 여성신학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우선적인 역할인지 재고가 필요함.

2) 해결을 위한 의견

- (1) 여성신학자협의회와 여성신학회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거기서 여성신학회의 주요 역할은 성명서보다 현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있다.
- (2) 사회적 주요 문제에 대해 여성신학회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회원의 일치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두어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위원회가 자체 결정하여 분과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3) 여성신학회가 학문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성명서는 긴급한 시기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는 힘이 있기에 학자로서 성명서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3) 합의

분과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실질적 회원(최근 5년간 학회비 납입, 1회 이상 모임에 참여한 회원) 2/3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한국여성신학회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함.

3. 기타 안건

1) Open 채팅방 개설 안내

- ① 참여 선택은 회원이 선택.
- ② 대상 : 회원으로 제한.
- ③ 회원 자격 : 연회비 납부자
 다음 카페를 통해 바로 회원가입은 지양하기로 함.
 5월 정기총회에서 알리기로 함.

2) 대학의 공동교재 제안

- (1) 교육위원회에서 여성신학회 사상집(1~10집)을 읽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독서토론식 교육을 구상 중임. 이 과정에서 사상집을 PDF 파일 또는 전자책으로 만들거나, 각 사상집의 키워드를 개념화하고, 사상집을 재편집하여 출판할 것을 제안함. 전자책 또는 출판물을 대학의 공동교재로 활용할 수 있음.
- (2) 여성신학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자책과 자료를 올려서 보관 및 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홈페이지 제작 관련은 향후 알아보기로 함.

6차 임원회의

- 목적: 공동학회 발표자 선정 및 선정 방식
 - 일시: 2023년 2월 1일 오후 8시.
 - 장소: Zoom
 - 참석자: 6명
- 회장 백소영, 부회장 강희수, 총무 진미리, 편집위원장 강호숙, 교육위원장 이주아, 서기 한경미

< 안건 >

1. 공동학회 발표자 선정 및 선정 방식

- 1) 한국기독교학회가 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2월 20일까지 발표자 선정을 요청함.
- 2) 지정주제와 자유주제 2인을 선정하기로 함.
- 3) 한국기독교학회 가제 : “신학교육의 미래와 전망” - 대학의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신학교육의 길 모색.
 - ① 지정주제 발표자 : 백소영 박사 / 논찬 : 조현숙 (서울신대) / 좌장 : 진미리 박사
“한국 신학교육 생태계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과 제언”,
 - ② 발표자 선정 이유 : 현 대학의 문제점과 위기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기에 이를 토대로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전망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봄.

- 4) 자유주제 발표자 선정을 이메일 통해 프로포절 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추천받아서 진행하기로 함.

- ① 자유주제 발표자 : 김순영 박사 / 논찬 : 김은애 박사
제목: 구약 잠언의 여성 지혜와 도덕경의 도(道)의 여성성 비교(A Comparison of the Femininity of Lady Wisdom of Proverbs in the Old Testament and Dao of Dao De Jing) (2월 15일 단톡방 공지)
 - * 강호숙 편집위원장이 김순영 박사에게 발표 의뢰하여 확답받음. (2월 2일)

- 5) 기타 논의 사항

지학회 모임을 각 전공 학회로 들어가고 따로 모일지, 여성신학회 모임으로만 할지는 공동 학회 일정을 본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함.

2. 5월 정기 학술제 발표자 및 진행 순서

- *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 1) 중견학자 발표 : 이인미 박사 (조직신학), 김성희 박사 (신약학) / 좌장 : 강호숙 박사
- 2) 공동 식사
- 3) 종합토론
- 4) 신진학자 발표 : 김세희 박사 / 김경희 박사

5월 정기학술제 및 신진학자 발표회 일시: 5월 20일 토요일 오전10시

7차 임원회의

- 목적 : 2023년 봄 정기 학술제 및 신진학자 발표회 준비
- 일시 : 2023년 5월 14일 (일) 오후 8시
- 장소 :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7명
회장 백소영, 부회장 강희수, 총무 진미리, 편집위원장 강호숙, 교육위원장 이주아,
서기 한경미, 회계 장양미

< 안건 >

1. 봄 정기학술제 및 신진학자 발표회 건

1) 일시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오전10시 - 오후16시 (장소 대여는 17시까지 함)

2) 장소

* 공간 새길 - 찾아오는 길을 지도로 안내하기로 함.

* 장소 대여비 : 10만원

* 인건비 : 10만원 (오전 50,000원, 오후 50,000원)

변경) 5월 17일 진미리 총무가 단톡방에 전달

장소 대여비 -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주차는 1시간당 천원, 종일권은 만원

3) 진행순서

(1) 봄 정기 학술제 : 오전 10시 - 12시

* 좌장: 강호숙 박사

* 발표1) - 40분

이인미 박사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 연구실장, 조직신학)

“기후위기에 대한 집합적 책임과 ‘용서’: 생태 여성주의의 ‘탈젠티화’와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 비교”

* 발표2) - 40분

김성희 박사 (안산대학교 교수, 신약학)

“생태 여성학적 성서해석으로 읽는 마리아의 노래 (눅1:46-55)”

* 질의응답 및 토의 - 40분

⇒ 총무는 좌장 강호숙 박사에게 발표자의 원고와 약력을 사전에 보내주기로 함.

(2) 광고, 단체 사진 촬영, 점심 식사 : 12시 - 13시

- * 소개하기 - 백소영 회장
- * 연회비 광고하기 - 자료집에 학회 계좌번호를 맨 앞에 기입하기
- * 점심 식사
제안) 지난 도시락 주문에서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몇 가지 메뉴를 선주문하여 세팅해놓고, 식사하기
예) 치토샌에서 주문 - 샌드위치, 샐러드. 그 외 레드향처럼 준비하기 쉬운 과일.

(3) 신진학자 발표회 : 오후13시 - 15시

- * 좌장 : 이주아 박사

* 발표1) - 30분

- 김세희 박사(보스턴대 박사, 구약학)
“잠언 8:22-31의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새로운 고찰”
논찬1) - 10분
임효명 박사(Camp Casey KATUSA 교회, 구약학)

* 발표2) - 30분

- 김경희 박사(감신대 박사, 목회상담)
“한국 여성의 ‘우리’ 개념에 대한 여성주의 목회신학적 성찰”
논찬2) - 10분
백소영 박사(강남대 교수, 기독교윤리)

* 논찬에 대한 발표자 답변과 참가자의 의견 - 40분

4) 기타준비사항

(1) 주차안내

기존 방식대로 참가자들께 안내. 차량번호 작성할 양식 준비 (담당 : 진미리 총무)

(2) 간식과 물(음료)

진미리 총무와 장양미 회계에게 위임하기로 함.

(3) 사례비

지난 5차 임원회의(2023.1.14)때 결정한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함.

- * 발표자 : 전임 10만원, 비전임 30만원 (전임1명 + 비전임3명 = 100만원)
- * 논찬자 : 10만원 (2명 = 20만원)
- * 좌장 : 10만원 (2명 = 20만원)
- * 합계 : 140만원

⇒ 해당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회계가 전달하기로 함.

(4) 자료집

자료집은 주중에 완성할 예정. 30권 인쇄하기로 함. (담당 : 진미리 총무)

자료집 판매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서 무료로 배포하기로 함.

(5) 포스터, 현수막

현수막은 기존에 있는 것 사용하기로 함.

포스터는 4장 정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쪽, 다른 방향의 입구에 부착)

(6) 회원 이메일 및 연락처 업데이트

기존 회원명부를 복사해서 이메일, 연락처 확인 및 수정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함.

(담당 : 진미리 총무)

(7) 연회비 안내 메일 발송

학술제 이후 회원 전체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기로 함. (담당 : 진미리 총무)

8차 임원회의

- 목적 : 2024년 한국여성 신학 시리즈 15집 진행 상황 점검 신년 하례회 준비
- 일시 : 2023년 11월 4일 (토) 오후 5시 43분
- 장소 : 르뱅포레 레스토랑
- 참석자: 회장 백소영, 부회장 강희수, 총무 진미리, 편집위원장 강호숙, 회계 장양미 (총 5명)
- * 참고 : 11월 4일 임원회의 후에 단톡방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함.

< 안건 >

1. 2024년 한국여성신학 시리즈 15집 진행 상황

1) 11월 진행 상황

- ① 10편의 논문이 들어와서 석사과정 학생에게 교정 맡겨놓은 상태. 1월까지 교정 완료되면, 동연 출판사에 출판하는 것으로 함.
- ② 교정 50만원 → 80만원 (10편. 1편당 8만원으로 추정)
- ③ 이난희 박사 논문은 연구재단 논문으로 투고 여부에 따라 싣기로 하였으나 투고 철회됨.
- ④ 전체 예산은 500만원 정도 예상함.
내역) 교정 알바생 장학금 80만원 + 저자 1편당 10만원(100만원) + 동연 출판사 (약 300만원) = 500만원
- ⑤ 동연 출판사에게 견적서를 요청하기로 함. 받은 견적서를 단톡방에 올린 후, 전체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함.

2) 12월 3일 편집위원회 단톡방에 보고 내용

- ① 12월 3일 편집위원 4인(백소영, 김수연, 김순영, 강호숙)이 줌 회의로 모여 「여성신학사상」 제15집 책 제목과 차례 및 동연 출판사와의 출판권 계약과 관련한 논의를 함.
- ② 「여성 신학 사상」 제15집 제목은 "연대하는 여성 신학"으로 결정함
- ③ 책 차례는 성서, 담론, 젠더 이슈의 세 부분으로 나눔
구체적인 순서는 성서 파트: ① 김순영 -> ② 박유미 -> ③ 김성희
담론 파트: ④ 백소영 -> ⑤ 김수연 -> ⑥ 최순양 -> ⑦ 구미정
젠더 이슈 파트: ⑧ 강호숙 -> ⑨ 김혜령 -> ⑩ 이주아
- ④ 출판 비용
총 480만 원 = 출판비 300만원(250부) + 100만원(1인 10만원×10명) + 교정비 80만 원
계약서 작성 후 날인 시 150만 원 입금. 출간 후 1주일 내 150만 원 지급하기로 함.
- ⑤ 출판일은 4월 말로 정함.
- ⑥ 출판권 설정 계약서 날인본 (2023.12.4) 파일(PDF)을 서기가 다운 받아 저장함.

2. 2024년 신년 하례식 준비

1) 진행방식

- ① 2023년 신년 하례회에서는 한국 여성 신학의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로 진행. 3월 신진 학술제 없이 5월 신진학자 발표 및 주제 발표하였음.
- ② 2024년 5월 정기학술제에는 총회가 있어 2023년처럼 진행하기 어려움.
⇒ 결정 : 신년 하례식에 신진학자 발표를 함께 하고, 5월 정기학술제와 정기총회를 함께 하기로 함.

2) 신진학자 섭외

- ① 정다운 박사. “요한복음의 기독론적 성전 신학” (2021) 장신대
- ② 그 외 추천자를 임원 단톡방에서 받기로 함. → 이후 11월 6일 총무 진미리 박사의 권유로 김용은 박사 (연세대)가 발표하기로 함.

3) 신년 하례식에 공유할 주제 논의

- ① 네트워크 신학교육(학교와 같은 기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여성주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상하여 집단지성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로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
- ② 교육위원회 프로젝트인 여성신학 사상지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점검 및 미래의 대안을 제시해 보자는 의견
⇒ 결정 : 부회장과 교육위원장이 협의하여 ②에 대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함.
- ③ 11월 28일 단톡방에서 교육위원회장이 ‘잇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교육’의 주제로 신년 하례회 때 토론 또는 발표로 진행하기로 전달함.

4) 신년 하례식 일시 및 장소

- ① 1월 23일과 25일 중, 단톡방에 올려 정하기로 함. → 11월 15일 단톡방에서 1월 23일 화요일로 결정됨.
- ②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새길 교회 알아보기로 함.

5) 12월 29~30일 단톡방에서 결정된 사항

- ① 일시 및 장소 : 2024년 1월 23일 (토) 오전 10시~오후 1시, 새길 교회 확정함.
- ② 진행
 - 1부 : 10:00~11:00 - 교육위원회 발표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여는 여성신학”
 - 2부 : 11:10~12:10 - 신진학자 발표 : 김용은 박사 (연세대, 선교 신학)
“은닉대본 이론을 통해 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막 7:24~30)”
 - 3부 : 12:10~13:00 - 식사와 친교 : 도시락 주문
- ③ 역할 분담
 - 진행자는 회장이 신년 인사부터 시작하여 전체 진행하는 것으로 함.
 - 신진학자 발표에서 논찬은 하지 않기로 함.
 - 웹자보는 총무가 하기로 함.
 - 점심 도시락 주문은 작년 도시락을 참고하여 회계가 하기로 함.

3. 2024년 5월 정기총회 일정

1) 정기총회 일정

- ① 5월 11일 또는 18일(토요일) 중에 정하는 것으로 함. 시간은 오전 10시. → 이후 단톡방 투표를 통해 18일로 확정됨.
- ② 여성신학 사상집(15집)에 실린 논문 중 2개를 선정하여 주제 발표하기로 함.

4. 회계 관련 보고

1) 이월금 및 후원금

- ① 2월에 받은 이월금 : 10,543,476원
- ② 기관 후원
 - 소망교회, 주안장로교회, 강남교회, 이화대학교교회, 한국기독교학회.
- ③ 개인 후원
 - 이영미 교수 패널비를 반환하여 후원금으로 함.
 - 이경숙 교수

2) 연회비

- ① 총 27만원. 주로 임원이 낸 회비임.
- ② 전체 메일 또는 총회 때 연회비에 대한 안내 필요.

3) 총수입 : 21,930,644원

4) 지출 후 이월 예상액

- ① 현재 약 17,000,000원 정도 있음(카카오 뱅크 산출 금액과 맞지 않아 확인 필요).
- ② 신년 하례회 및 여성신학 사상집 비용 지출한 후, 약 11,000,000원(전 회기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월하고자 함.
- ③ 이월금이 전 회기 이월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장이 모금을 통해 금액을 맞추기로 함.

5. 기타

1) 한국기독교학회 좌장 사례금 책정 관련 : 11월 5일 단톡방에서 결정된 사항 기록

- ① 지정주제 발표자 : 백소영 박사 / 논찬 : 조현숙 (서울신대) / 좌장 : 진미리 박사
 - ② 자유주제 발표자 : 김순영 박사 / 논찬 : 김은애 박사 / 좌장 : 진미리 박사
- ⇒ 진미리 박사가 지정주제 및 자유주제 총 2회에 걸쳐 좌장을 했기에 2회에 관련된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함.

2) 기독교 공동학회 논문 발표자 및 논문 제목 (2월 15일, 17일 단톡방에 공지)

- ① 김순영 박사 (미주장신대) / 논찬 : 이은애 박사 (이화여대)
“구약 잠언의 여성 지혜와 도덕경의 도(道)의 여성성 비교”
(A Comparison of the Femininity of Lady Wisdom of Proverbs in the Old Testament
and Dao of Dao De Jing)
- ② 백소영 박사(강남대학교) / 논찬 (조현숙/서울신대)
“한국 신학교육 생태계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과 제언”

9차 임원회의

- 목적 : 2024년 5월 학술회 및 정기총회 준비
- 일시 : 2024년 1월 23일 (토) 오후 1시 (신년 하례회 후)
- 장소 : 공간 새길
- 참석자: 회장 백소영, 부회장 강희수, 총무 진미리, 편집위원장 강호숙, 서기 한경미, 회계 장양미 (총 6명)

< 안건 >

1. 2024년 5월 학술회 및 정기총회

1) 정기총회 일정

- (1) 2024년 5월 25일 (토) 오전 10시~13시
- (2) 장소 : 공간 새길
- (3) 진행 : 8차 임원회의에서는 여성신학 사상집(15집)에 실린 논문 중 2편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총회 일정으로 1편만 발표하기로 함. 1부는 학술회, 2부는 정기총회를 하기로 함.

- 1부 학술회

사회 : 강호숙 박사

발표 : 박유미 박사 “딸을 위한 어머니는 없었다”

- 2부 정기총회

- 공동 식사 : 도시락을 주문하기로 함.

2) 총회 자료집 준비

총무 사업보고, 서기보고, 회계 보고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로 함.

회계 감사로 송진순 박사, 김혜령 박사에게 의뢰하기로 함.

2. 기타

- 1) 향후 여성신학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무의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함.
- 2) 여성신학회 자료집을 보관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함을 논의함.

편집위원회 보고

(편집위원장 강호숙)

* 여성 신학 사상 제15집 『연대하는 여성 신학』

< 출판 경과 >

출판은 “도서 출판 동연”으로 결정

- 2022년 8월: 임원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독교 여성주의를 알리자는 취지에 따라 여성 신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루는 서적을 출판하기로 결의함
- 2022년 8월: 회원들에게 여성 신학 사상 청탁 글 공고 (메일발송)
- 2022년 10월: 임원 회의에서 필진과 대략적 주제와 내용, 원고 마감과 출판일을 논의함

1. 2022년 8월 17일: 필진 공고 및 편집위원 구성
(강호숙, 김수연, 김순영, 박유미, 백소영, 진미리 박사)
2. 2022년 10월 29일: 필진 10분 확정
3. 2022년 12월 19일: 필진 그룹 카톡방 개설 및 회장 백소영 박사의 명의로 위촉장 전달(강호숙, 구미정, 김성희, 김수연, 김순영, 김혜령, 박유미, 백소영, 이주아, 최순양)
4. 2023년 7월 31일: 1차 원고 수합
5. 2023년 8월 21일: 편집위원 오프라인 모임(편집 일정 논의와 필진들에게 9월 15일 까지 수정요청)
6. 2023년 9월 30일: 2차 원고 수합
7. 2023년 11월 말 원고 1차 교정 작업(박호현 대학원생)
8. 2023년 12월 3일: 편집위원회에서 여성 신학 사상 제15집 제목(“연대하는 여성 신학”)과 목차 및 출판권 계약과 관련한 논의를 함
9. 2023년 12월 4일: 도서 출판 동연과 정식계약 체결
10. 2024년 1월 31일: 김수연 박사의 개인 사정으로 논문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긴급 비대면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어 철회할 것을 결정함. 다만, 15집 원고 모집 시에 이 조항에 대한 공고가 없었으므로, 이 신설조항은 “이미 최종 원고가 출판사로 넘어간

뒤에는 원고를 철회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16집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함.

11. 2024년 3월 24일: 3교 최종파일을 동연 출판사에 보냄.
12. 2024년 4월 19일: 책 출간(총출판비 300만 원)- 250권 중, 50권은 저자 9분에게 5권씩 권 배부(5권은 편집위원인 진미리, 김수연 박사에게 배부), 여성 신학회에서 200권 소유.

회계사업보고

■보고 및 작성: 장양미(회계)

■이월: 10,543,476원

■수입: 25,997,849원(이월금 제외: 15,454,373원)

■지출: 12,142,250원

회계기간: 2022.06.13.~2024.05.06. / 작성일: 2024.05.06. 단위: 원

수입부	내역	상세항목	수입	비고
전회기 이월	이월금		10,543,476	(2022.06.13) 1,437,580원 전회기 카카오뱅크 잔고 (2022.06.13.) 9,004,113원 전회기 신한은행 잔고 (2022.07.02.) 101,783원=이대대학교회 후원금10만원+ 이자 1,783원
	소망교회		5,000,000	
	주안장로교회		3,000,000	
	이화대학교회		2,200,000	월별 정기 후원: 100,000원*22개월
	강남교회		300,000	
	한국기독교학회		1,000,000	500,000원*2회
	이영미		100,000	신년하례회 패널비를 후원금으로 기부
	이경숙		100,000	
	백소영		2,000,000	
	회비	연회비	630,000	3만원*21명
		평생회비	1,000,000	백소영
예금 이자			24,373	
원고료 반납	여성신학사상 투고 철회		100,000	김수연
수입소계			25,997,849	

지출부	내역	상세항목	지출	비고
학술 활동	한국기독교학회		1,500,900	(2022.10.29) 발표비 200,000원(이주아) 논찬비 100,000원(한경미) 좌장비 100,000원(강희수) 참가지원금 210,000원/3만원*7명)
				(2023.11.04) 발표비 400,000원/20만원*2명(백소영, 김순영) 논찬비 100,000원(이은애) 사회비 200,000원(진미리/1~2부) 자료 복사비 25,200원 참가지원금 150,000원(3만원*5명) 발표문 복사비 15,700원
		신년하례회(토 크 콘서트)	2,363,710	(2023.01.14) 패널사례비 300,000원/10만원*3명(이영미, 김정숙, 강호숙) *이영미: 사례비를 후원금으로 기부(수입부 비교) 간사 수고비 100,000원(새길간사) 녹취록 작성료 200,000원(박호현/학부생) 식비 282,750원 선물비 154,960원(5,200원*30개=16만원/할인받음) 공간대여료 100,000원(공간새길) 현수막, 포스터 44,000원 (2024.01.23) 사회비 100,000원(강호숙) 학술발표비 300,000원(김용은)

			교육위원회 발표비 400,000원/10만원*4명(이주아, 한경미, 강희수, 김나경) 식비 183,050원 간식 및 물품비 56,950원 포스터 22,000원 자료 인쇄비 20,000원 공간 대여료 100,000원(공간새길)
	정기학술제	2,299,480	(2023.05.20) 포스터/자료집 128,000원 발표비 비전임 900,000원/30만원*3명(김경희, 김세희, 이인미) 전임 100,000원 (김성희) 논찬비 200,000원/10만원*2명(백소영, 임효명) 좌장비 200,000원/10만원*2명(강호숙, 이주아) 공간 대여료 300,000원(공간새길) 간사 수고비 200,000원(새길간사) 식비 271,480원
	여성신학사상 15집	4,800,000	계약금 3,000,000원 원고료 1,000,000원(10만원*10명) *김수연: 투고 철회로 원고료 100,000원 반납(수입부 비교) 교정료 800,000원
대외 활동	PANAAWTM과 마팅	47,500	참여자: 전현차기회장
임원 회의	임원교체식 및 편집위원회 회의	567,000	(2022.07.08) 신구임원 교체식 331,500원 (2023.08.21) 편집위원회 85,000원 (2023.11.04) 임원회의 150,500원
문구	여성신학회 직인	39,500	
우편 및 배송		74,160	(2022.06.18) 전임회기 물품 배송(택배 4상자) 27,000원 (2024.04.29./05.02) 여성신학사상 15집 배송 47,160원
축위	근조	450,000	임원 200,000원 장양미(현임원) 부친상 화환 및 조의금 200,000원 안상님(구임원) 남편상 화환 및 조의금 일반회원 50,000원 윤소정 친모상 부의금
지출소계		12,142,250	
차기이월(2024년)		13,855,599	2024.05.06 현재 잔액
총지출		25,997,849	

학회 연회비

2022년	김세희, 김정숙, 최은영, 강희수 (4명)
2023년	김경희, 최우혁, 김용은, 강희수, 강호숙, 이주아, 장양미, 백소영, 진미리, 한경미 (10명)
2024년	장양미, 한경미, 백소영, 이주아, 강호숙, 강희수, 진미리 (7명)
평생회비	백소영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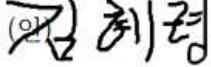
감사보고서

2022년 6월 13일부터 2024년 5월 6일까지 한국여성신학회 회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감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래 -

1. 일시: 2024년 5월
2. 장소: 이메일로 감사 내역에 관한 파일 확인
3. 감사내역(2022.6.13 ~ 2024.5.6)
 - 1) 회계결산서 (입출금 내역 및 수입지출 상세 내역)
 - 2) 통장내역서
 - 3) 학회활동비 내역 입출금 전표
4. 감사결과 학회활동을 위한 각종 명목의 수입과 학회 모임과 학술대회, 그리고 학회신학논집 발간을 위한 지출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회계기록과 증빙자료들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5월 7일

감사 김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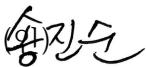
감사보고서

2022년 6월 13일부터 2024년 5월 6일까지 한국여성신학회 회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감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래 -

1. 일시: 2024년 5월
2. 장소: 이메일로 감사 내역에 관한 파일 확인
3. 감사내역(2022.6.13 ~ 2024.5.6)
 - 1) 회계결산서 (입출금 내역 및 수입지출 상세 내역)
 - 2) 통장내역서
 - 3) 학회활동비 내역 입출금 전표
4. 감사결과 확회활동을 위한 각종 명목의 수입과 학회 모임과 학술대회, 그리고 학회신학논집 발간을 위한 지출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회계기록과 증빙자료들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5월 7일

감사 송진순 

한국여성신학회 회칙

제1조 (명칭)

우리 회는 한국여성신학회(KOREAN ASSOCIATION OF FEMINIST THEOLOGY)라 부른다.

제2조 (목적)

우리 회는 양성해방과 인간화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우리 회는 사무실은 회장의 소재지에 둔다.

제4조 (관계)

우리 회는 한국기독교학회에 가입하여 다른 학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제5조 (회원)

제1항 (자격)

우리 회의 회원은 신학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신학 활동을 하는 자와 여성신학에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또한 석사재학중인 자는 준회원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제2항 (의무)

우리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납부자에 한하여 회원으로 인정한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과 기타 여성신학에 관계된 활동에 적극 참석해야 한다.

제3항 (권리)

우리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총회)

우리 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회를 두며 총회는 1년에 1회, 5월 정기학술세미나 개최 시에 열고 임원 선출은 2년마다 하기로 한다. 임원선출, 사업, 재정에 관한 일 등 우리회의 중요한 사항은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회의성원은 출석인원으로 한다.

제7조 (조직)

제1항 (임원)

우리 회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우리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

기는 재선에 한한다.

임원 :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실무운영을 담당한다).

제2항 (부서)

우리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부장을 둘 수 있다.

부서 : 편집부장, 연구부장, 홍보부장 등

제3항 (감사)

전 임원진 중 감사 2인을 두기로 한다.

제8조 (사업)

우리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기학술대회

1. 여성신학회 학술지 『여성신학사상』을 위시한 출판사업

1. 전국적 혹은 지방적인 연구회, 강연회, 협의회 개최

1. 그 밖의 필요한 사업

제9조 (재정)

우리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회비)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로 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회칙에 기록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12조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 1991년 4월 25일 제정 / 1992년 3월 18일 개정 / 2001년 5월 26일 개정/ 2009년 4월 18일 임원회 수정초안 작성 / 2009년 10월 16일 총회 수정안 통과 / 2010년 5월 1일 본 회칙에 의거하여 23기 임원진 선출 / 2012년 5월 26일 본 회칙에 의거하여 24기 임원진 선출/ 2020년 7월11일 개정